

병원경영 정상화의 한 해를

새정부, 병원살리는 정책 펼쳐야



글·김 광 태 |
대한병원협회장

2003년 계미년(癸未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정부 출범과함께 새해에는 병원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인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의약분업이후 병원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전문인력의 이직으로 진료공백이 빚어지면서 병원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된 매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적자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병원회생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에 대한 병원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조정을 통하여 수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정부는 의료보장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의료복지 구현에 국민적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질병발생에 대처하고 건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보장의 「틀」을 의료위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무엇보다 보험재정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하는데, 현재 OECD 국가의 1/3 ~ 1/5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합니다.

새정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재삼 요청드립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의 정상화가 뒷받침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의료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평가하여 병원의래조제실 회복문제를 비롯하여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함으로써 환자편의도모는 물론 보험재정절감 효과도 거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선진의료제도 구축방안으로 먼저 적정진료여건 및 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여 수술, 입원진료, 특수검사 등을 허용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와함께 수가체계를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하고 외래환자본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의료이용에 왜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평가는 지난 20여년 동안 병원표준화사업을 시행해온 대한병원협회에서 병원신임평가(병원표준화심사)와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만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가므로써 병원계가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정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재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병원계는 그 동안 병원과 정부 및 국민 사이에 형성됐던 불신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되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3